



재무 약점부터 보완하라

적금·보험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라

높은 수익률 쫓다간 금융자산까지 손실 위험
보험료 등 고정지출 소득의 40% 안 넘어야

이 바람직하다. 심지어 자신이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을 두 배로 배틀러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두 번째 유형은 고정지출이 큰 가정이다. 일반적으로 변동지출은 소비성 지출이 많으므로 변동지출이 많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변동지출은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정지출은 매월 꼭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정지출이 클 경우 소득원 감소와 같은 재정적인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다.

밀수범 연령 낮아지고 여성 급증

지난해 5,433명 적발... 여성이 40%

최근 밀수범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여성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밀수범은 5천 433명으로 전년의 4천512명보다 20.4% 늘었지만 여성은 1천 235명으로 39.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밀수범중 여성의 비중은 22.7%에 달했다. 여성 밀수범의 비중은 2004년에는 20.2%, 2005년에는 19.6%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과 밀수입 사건에 가장 주부 18명이 연루되는 등 지난 4월까지 여성이 373명이나 검거되면서 전체 밀수범중 여성의 비율이 23.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 등을 주문,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이버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30대이하 젊은층의 비중이 높아졌다.
2005년까지만해도 적발된 밀수범중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에는 30대이하의 비중이 37.9%로 40대(33.0%)를 따돌렸으며 올해 1~4월에 30대이하 밀수범이 491명으로 40대(462명)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전경련, 예정대로 배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형'을 예정대로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2월 체결한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에 따라 양 기관과 한국경제교육회화가 제작의 전과정에 걸쳐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지난 2월에 개발을 완료했다.
전경련은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체제와 형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제교과서는 풍부한 현실 사례 소개, 학생들의 체험활동 및 경제 실험 등을 통해 경제 개념이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신학기 시작 때 책자를 배포하려다 교육부의 일부 수정 작업으로 인해 미뤄왔으나 일선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배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낙제점'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기업규제 실태' 보고서

2003년 7천건서 지난해 8천건으로 지속 증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4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 2003년 7천 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천846건, 2005년 8천171건, 2006년에는 8천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규제를 옥죄는 핵심규제가 전혀 개

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제도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으나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토비 도슨, 기아 오피러스 타다
기아차가 제공한 뉴오피러스 웨딩카 양쪽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해 친부모를 찾은 미국 전 스키국가대표 선수 토비 도슨과 부인이 24일 다시 고국을 찾아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OECD 회원국 올 성장률 2.7%"

상반기 경제보고서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의 높은 성장세와 금융시장 여건의 호조를 근거로, 올해와 내년의 회원국 성장률을 각각 2.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올해와 내년의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와 2.7%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 5.6%, 내년 5.5%로, 2006년의 5.9%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의 인플레이션율은 2.1%와 2.0%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우,

주택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2.1%로 다소 둔화하지만, 주택 경기 조정 마무리 및 세계 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증대로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2.5%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권 경제는 고용 여건 개선에 의한 민간소비 확대에 올해 2.7% 성장하는 등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도 활발한 기업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2.4%, 내년엔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중국은 10.4%, 인도 8.5%, 러시아 6.5%, 브라질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하반기 코스피지수 1,850 간다"

증권사 "내수경기 장기 성장동력 확보·기업 실적 개선"

증권사들이 하반기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최고 1,850선까지 상향하는 등 잇따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하반기 코스피지수 전망치 고점은 1,700~1,850선이다.
현대증권은 당초 올해 코스피 전망치로 1,500~1,690을 제시했으나 최근 하반기 지수 범위를 1,600~1,850으로 상향했다. 올해 고점으로 1,700을 제시했던 메리츠증권도 하반기 지수 범위를 1,550~1,850으로 상향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내수경기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반영해 지수 목표치를 1,820으로 상향했으며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을 들어 이따따 목표치를 1,800으로 높여잡았다.
현재 하반기 지수 범위를 1,450~1,700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우증권도 이달 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들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실적 개선, 유동성 여건 호조 등을 하반기 증시 호재로 거론했으며 다만 금동에 따른 기술적 부담과 중국 건축 우려 등을 하반기 증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하반기 증시 상승을 이끌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기계·철강 등 소위 중국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도 주도세를 이어가리라는 전망과 IT와 내수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이 다시 전면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교보증권은 중국의 경제 성장 지속에 따른 수혜업종인 조선·화학업종을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700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우증권도 이달 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들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실적 개선, 유동성 여건 호조 등을 하반기 증시 호재로 거론했으며 다만 금동에 따른 기술적 부담과 중국 건축 우려 등을 하반기 증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하반기 증시 상승을 이끌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기계·철강 등 소위 중국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도 주도세를 이어가리라는 전망과 IT와 내수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이 다시 전면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교보증권은 중국의 경제 성장 지속에 따른 수혜업종인 조선·화학업종을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증권사별 코스피지수 전망

Table with 4 columns: 증권사, 하반기 지수(연도), 유망업종, 비고. Includes rows for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팝고 현대증권, 호남석유화학, POSCO 등을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항공사 기내식 '한류열풍'

전통음식 건강식 알려져... 외국인에 인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미주와 유럽, 대양주, 동남아 노선에서 기내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비빔밥은 전세메뉴 가운데 기본 탑재율이 60% 정도이고 최근 대장급 등 해외 수출 드라마의 영향으로 외국인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기내식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항공의 기내식 비빔밥은 1997년부터 서비스했으며 1998년 기내식 부문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국제기내식협회의 대상격인 '머큐리상'을 받았다. 세계적 평가수인 마이클 잭슨은 199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항공의 기내식 비빔밥을 먹어본 후 국내 체류중 호텔에서 내내 비빔밥만 먹고 갔다는 일화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 제공중인 영양쌈밥도 승객의 선호음식으로 자리잡았다.
불고기와 9가지 야채, 호두·잣·땅콩·호박씨·해바라기씨 등 견과류를 갈아 넣은 된장이 나오는 영양쌈밥은 승객의 70% 이상이 찾은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의 영양쌈밥은 국제기내식협회(ITCA)가 수여하는 '머큐리상' 식음료부문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학원산업 매출 '시들'

1분기 전년동기보다 2.2% 감소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학원산업 매출이 올해 들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식장산업 매출은 입춘이 두 번 있어 결혼하면 좋다는 쌍춘년(雙春年) 효과가 이어져 올해 1~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4분기부터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입시·보습·어학·예술 등 학원산업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감소했다. 학원산업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05년 4~4분기의 -5.8%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재수생들이 많았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입시제도가 적용되면서 재수생들이 줄어 학원산업의 매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학원과 달리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의 매출은 3.9% 늘어나 2002년 4.4분기의 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현금자산 줄었다

전년보다 7.2% 감소

올들어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실적 부진 여파로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줄어든 데다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부채 상환 등에 지출을 늘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비교 가능한 525개사의 2004~2007년 사업·분기보고서상 현금성 자산 현황 및 추이를 조사한 결과, 올 1~4분기 말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24조8천 482억원으로 작년 1~4분기 말 26조7천 920억원에 비해 7.25% 감소했다.
작년 4~4분기 말과 비교할 경우에도

10대 그룹은 14.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 10대 그룹은 26조2천 567억원으로 14.08% 늘었다.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10대 그룹과 비 10대 그룹간 현금성 자산 비중이 역전됐다.
10대 그룹과 비 10대 그룹간 현금성 자산 비중은 ▲2004년 말 53.97% 대 46.03% ▲2005년 말 56.25% 대 43.75% ▲2006년 말 55.70% 대 44.30%의 비율로 10대 그룹이 앞섰지만, 올 1~4분기 말에는 48.62% 대 51.38%로 상황이 달라진 것.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은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대비 28.59% 감소했으나 전체 보유 규모는 6조6천913억원으로 1위를 고수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 from companies like 우양물산, ㈜전통, 테크노밸리, 남해철강, ㈜코엔텍, ㈜발해정보, 아이지미솔, 네오인트, 엘지 패전, ㈜휴로넷, AIG손해보험, ㈜르네상스정보기술, 안경엔지니어링(G#)지식보청기, ㈜코스모이앤지.



<광주잡코리아 512-6120 제공>